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1호 [주제 제2647호]

주제 110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음력 4월 11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애국과 청년

젊음은 청년의 지표이다. 왕성한 정열과 넘치는 힘, 희망찬 꿈과 이상, 담대하고 통큰 기백으로 하여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보람차고 값있는 시절로 여겨지는 것이 다름 아닌 청년시절이다.

하다면 한생에 다시없는 귀중한 청년시절을 어떻게 바치는 것이냐고 후날에 가서도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영예와 긍지로 되는가.

조선로동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기발을 역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피와 땀 다 바쳐 받들어갈 장엄한 진군의 자욱을 힘차게 내짚는 수백만 조선청년들의 심장속에 그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꿈이 집약되어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나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청년이

부름은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부의 길에서 청년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꽃피우고 인생의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찾는 조선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그의 값높은 믿음의 표창이다.

애국이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내내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의 자세이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나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악에 병들어 사치와 향락, 리기와 탐욕의 수렁에서 허물어져갈 때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애국에 두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공화국의 청년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사회주의조선의 강요한 기상이 어려오는 수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시간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시화창조의 주역들, 그들은 바로 청년들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 진군길에서 청년의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며 철의 기지들과 화학공업기지들, 수천척지하막장들 그 어디서나 창조투쟁, 중산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사람들도 피끓는 청년들이다.

나라가 걱정하고 인민이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그 어떤 명이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탄광과 광산,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장소로 앞을 닦아내며 탄원해가는 청년들은 그 얼마나 단사들의 심금을 구원하기 위해 피와 살도 나누고 지어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친자식,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 미덕의 화원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는 또 얼마나 단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것인가.

훌륭한 자식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풀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다면 애국으로 빛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

에서 청년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청년중시를 공화국의 영원한 전락적로선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이 것이 주제100(2012)년 8월에도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청년절정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은 정령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멀리 전진시찰의 길에서 축하분까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라!》, 이것이 주제의 청년운동사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력사의 분기점에서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승리를 위해 견결히 투쟁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의 맹세이고 내세우는 청년의 기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과 뜻도 마음도 함께 하며 애국에 살고 애국으로 분투하는 미덥고 끝없는 애국청년들의 대부대가 있어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영범

## 근거를 믿음속에 사상의 거리의 맑은 기류

오늘 공화국에서는 전사적으로 군중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그 어디서나 회열과 광만,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 있다.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 군인가족에 솔소조공연도 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하신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서도 출연자들은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불타는 애국과 충성으로 빛내어나가는 군인가족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마음쓰는 정든 고향집에, 남편들을 적극 뒷받침해주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군인가정의 미더운 호주가 되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무와 책임을 다해나가는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군인가족들이 오늘과 같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주제103(2014)년 12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자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공합연을 관람하시고

경애하는 그의 열정넘치는 모습이 눈앞에 어 려운다.

그날 무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의 그제서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이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땅을 굳게 밟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관주의를 보고 대 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 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은 군인가족들의 심장에 은혜로운 태양의 빛바람 따스스 며들었다.

경애하는 그의 그제서 우리 혁명 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 인 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어 강대국들이 아니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결에서 뒤바라지 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동탄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가 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 있다는것을 세상 세겨안게 되었다 고 하시었다.

이제 이 세상 그 무엇 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전우들이자 동지들의 남편들, 자식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 들인 동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시면서 모두 건강하고 화 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 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었다.

군인가족들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녀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산중, 외진 터마에서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본사기자 류현철

## 평안북도에서 수백세대의 살림집 새로 건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구성 시 수백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웠다.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일떠 선 살림집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창고 등이 주민들의 생활상편리에 맞게 꾸려졌으며 살림

집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내려 풍치를 한껏 돋우고있다.

도에서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문명수준에 맞게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건설할 목표밑에 로력조직과 설비, 마감건재 등을 원만

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선전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설계가 완성되고 자재보장이 적극 따라서는에 맞게 건설자들은 기조 골착, 벽체축조, 내외부미장을 비롯 한 전반적인 공사를 원만히 해 제기했다.

지역적특색이 살아나게 일떠 선 새 살림집들은 공화국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될 삶의 터전들이다. 새집들이를 하는 주민들을 일군들이 축하해주었다.



## 동래강저수지에서 흥건도 간석지까지 물길통수식 진행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새 관개수로인 동래강저수지로부터 흥건도간석지까지의 물길이 완공되었다.

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물길을 건설할 통이 큰 목표밑에 설계를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내적잠재력을 총발 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공정별에 따르는 계획작성과 로력, 설비, 자재 보장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 수 있는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자력갱생, 건일불발의 투쟁기풍으로 건설자들은 수십만㎡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배수집개소의 구조물을 일떠세워 수십리구간의 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계속됨으로써 흥건도간석지와 선천군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 주어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 되었다.

동래강저수지에서 흥건도 간석지까지 물길통수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통수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물길을 돌아보았다.

## 조국소식

함경남도인민병원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새롭게 변모되었다.

도인민병원이 개건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참가케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

## 함경남도인민병원 개원식 진행

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함경남도인민병원 개원식이 19일에 진행되었다.

도와 시, 군의 관계일군들, 도인민병원 의사, 간호원들, 함

흥시안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도인민병원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우며 조국방 방방곡곡에 인민사랑

의 새 전설을 끊임없이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신로의 로고와 심혈이 안아 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인민병원 개건정형을 구체적으



로 로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함경남도인민병원을 본보기, 표준이 되게 꾸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쳤으며 부패산세멘트공장을 비롯 한 건재부에서 필요한 세멘트와 마감건재들을 생산보장 하였다.

2.8비달론련합기업소와 흥남 비료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 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일용품공장,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목제품공장 로동계급이 공사를 내밀고 설비, 비품들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과학원 합 용분원과 함흥청년전기기구공 등에서도 완공에 적극 기여 하였다.

개원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병원을 돌아보았다.

## 비료생산에서 혁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전 반적인 생산공정들을 정비보 강하고 현존생산능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특히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기술력량을 강화하며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리이켜 비료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데 힘을 넣었다.

사회주의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선 책임감을 자각

본사기자

#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지난 4월 재일동포들이 어머니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어느덧 167번째,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사랑의 력사가 64톤기의 넉넉을 아로새기었다.

그 성스러운 년대기는 해외동포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움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사랑과 충정의 서사시이다.

## 세상에 없는 예산 항목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간절한 소원들중의 하나가 자식들을 공부시켜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 것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이역땅에 끌려가 민족적멸망의 학대,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조국해방후 어려운 형편에서도 한푼두푼 돈을 모아 도처에 학교들을 세웠지만 그 토대는 너무도 빈약하였다. 판자집이라도 자체의 교사를 가지고있는 학교는 몇개 안되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반학교의 교실들이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불편한 결방살이를 하고있었다. 교구비품도 변변한것이 없어 소학교 1학년생이나 앞을 작은 결상에 중학생들이 웅크리고앉아 공부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 짐으로 악랄한 동화정책을 국책으로 삼은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그를 말살하기 위해 파쇼적관료도 서슴치 않았다. 바로 이것이 1950년대 중엽 총련의 민족교육실태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동포들이 겪는 수난, 그중에서도 민족교육이 처한 어려운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시였다.

주제44(1955)년 9월 29일 조국해방 10돐경축 재일조선인총합단 성원들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던 때의 일이다. 이날 사신을 헤치고 조국에 온 그들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이 이국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직한 애국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자체로 대학을 내을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아주 강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진취교육사업을 힘껏 도와줄것이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었다.

순간 축하단성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전쟁이 남긴 상처가 깊은 조국의 엄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그들이때때로였다.

전후복구건설로 한푼의 자금도 귀하던 때였다. 파괴된 공장들과 농촌들을 복구해야 했고 맨발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도 안겨주고 햇빛같은 교실도 지어주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나라살림이 어렵다 해도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꼭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뜻이었다.

항일전의 나날 간방석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이 어려웠던 귀한 돈으로 햇빛은 마인산아동단원들에게 새옷을 입혀주시던 그 뜨거운 후대사랑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주지없이 용단을 내리신것이였다.

1957년 1월말 평양에서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내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국가예산초안을 보여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중의 하나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신 6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2017년 4월, 도교조선문화회관)

와 장학금이였다. 그런데 나라의 재정형편이 너무 긴장하여 일군들은 그 돈을 국가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립시외화계획에 넣으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아십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한두번 보내주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일본에 우리 동포가 있고 배워야 할 어린이가 있는 이상 계속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립시적인 사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을 새로고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

수령님의 이 간곡한 교시는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일게 하였다. 세상에 없는 예산항목이였고 누구도 상상 못한 일기때때로였다. 1957년, 그해는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이 시작되는 첫해였다. 달성해야 할 방대한 목표에 비해볼 때 자금, 자재, 로력은 엄청나게 모자랐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눈보라를 뚫고 강선을 찾으시어 강재를 펴주시었다. 차디찬 방에서 몸아드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우리 말 교과서를 환런환런 만들던 고원들이, 눈물겨운 돈 한푼한푼을 모아 판자집교사의 지붕이나마 없으며 쓰라린 가슴을 달래던 부모들이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치었다. 그 환호성은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당시 총련 《조선신보》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지금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나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로 회열과 기쁨이 들끓는 장면에 부딪친다. 돌이 만나나 셋이 없으나 동포가 모인 장

소라면 이 화제로 꽃이 핀다. 시 간이 가는줄 모르고 감격의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 결의를 터친다.》

은 동포사랑이 감격과 흥분으로 열려있던 그때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을 노래에 담아보려고 모지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선생이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에서 돈을 보내어올줄을 우리 동포들중 과연 누가 꿈결이라도 생각해보았겠는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한덕수의 장선생은 붓을 달리었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 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

...가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은혜로운 사랑의 생명수를 부여주시어 주체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펼쳐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이역의 아들딸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가사와 선물에 실려있기에 이 노래는 6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사람들의 눈시울을 축축히 적셔주고있는 것이다.

어두운 구름장을 뚫고 비처럼 와도 같은 그 사랑의 젖줄기는 동포들모두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차디찬 방에서 몸아드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우리 말 교과서를 환런환런 만들던 고원들이, 눈물겨운 돈 한푼한푼을 모아 판자집교사의 지붕이나마 없으며 쓰라린 가슴을 달래던 부모들이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웨치었다. 그 환호성은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당시 총련 《조선신보》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지금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나 조국에서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로 회열과 기쁨이 들끓는 장면에 부딪친다. 돌이 만나나 셋이 없으나 동포가 모인 장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었다.

1974년 재일동포들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 전해의 두배나 되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보내주시는것이였다. 바로 그해 2월에 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남들에게나 상식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심한 경제적과로 위기가 휩쓸고있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교육사업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는것이였다. 수십년세월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수놓아졌다.

그토록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로부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때면 우리가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하는것인데 무슨 감사인가고 밀박으시며 사실 조국에서 보내주는 돈은 많지 못하다, 교육원조비는 교원들의 로임에도 좀 보태여야 하는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곤 하시었다.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던 수령님의 은정은 참으로 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높고 큰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그 결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보내주시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였다.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를 다니게 되고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들먹이였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총련의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보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려고 생각을 더 늘여야 한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었다.

## 변함없이 이어지는 아버지사랑

기나긴 총련민족교육력사의 갈피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 숭고한 후대관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총련에 보내는 거액의 교육원조비에는 총련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담겨져있다고,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동포자녀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하시며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었다.

주제76(1987)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두고 하신 가슴뜨거운 교시는 오늘날도 재일동포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총련의 후대를 키우는 일이라면 나는 나라의 재부를 다 보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이런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라면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재일동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마음이자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이였다. 조국의 이름있는 대학들에 특별히 마련된 총련교육자들을 위한 연구원과 박사원, 겸임연구사제에도 그리고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총련 조선대학교의 조선력사박물관과 자연박물관, 도서정밀 자연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민족의 마사로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그 결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보내주시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였다.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거처인 이역땅에서 민족의 혈통, 애국의 처럼 은정깊고 위대한분은 없으시다.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이제는 우리 애들이 학교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도 아들딸도 지적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아버지심정으로 수령님이 보내셨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받아야 할것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서도 왜 아무말없이 가만히 있는가. 그래서는 안된다. ... 조국에 늘쌍 부담을 끼쳐드리지 않는것을 송구스러워하는 이역의 자식들에게 친부모의 심정으로 하시는 사랑의 책망이였다. 총련의 책임일군은 그만 격정으로 목이 짝 메어 《예, 알았습니다.》라고 간신히 대답올리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책임일군으로부터 이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 해들은 총련일군들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늘 일군들에게 간곡히 이르곤 하시었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인민경제부문에 투자하는것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화국에서는 절대로 안된다. ... 이역의 동포자녀들을 위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된 일본의 한 진보적인 교육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총련의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둘러지는 공화국의 배려는 해외교포들에 대한 교육의 지원이라는 종전의 개념과 기준으로써는 도저히 짚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비서는 현대해의 교포교육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걸출한 교육자이십니다.》라고 자기의 격정을 터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불보다 뜨거운 후대사랑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가 전대미문의 고난을 헤쳐나가던 엄혹한 시기에도 변함없이 이역만리에 그 굵어졌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나신 그해 1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 대한 화제를 꺼내실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는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계시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 ...

그 누구보다도 상상의 아들이 크신 그이께서 그 가슴터치는 비애의 나날에도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가.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것은 단순한 재정적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키고 수령님께 의리와 도리를 다행히가는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이 아버지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였다.

공화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수십년간 끊임없이 보내주고있는 이 전대미문의 사실은 남조선과 세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언제인가 총련일군들이 남녘땅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남조선인민들이 제일 놀라고 감동을 금치 못할것은 《민단》동포들은 우리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총련 동포들은 아주 류창하게 하는것이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마다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생생수로 하여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이 강화발전되고 10여년만에 말하는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웠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그들은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군들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락에는 환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어려있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으며 어엿하게 성장하여 오늘 조국과 총련에서 애국의 대를 꽃피고 이어가고있는것인가. 이역의 하늘아래에서 총련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세대들도 마를줄 모르는 그 사랑의 젖줄기를 자랑분으로 하여 여색게 자랑고있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해외교포들을 가지고있지만 공화국의 재일동포들처럼 유취원으로부터 대학까지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고있는 해외교포들은 없다. 이역만리에로 끝없이 굽이치는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이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어느 하루도 전쟁의 검은구름이 가시어질줄 몰랐고 공화국인민은 언제 한번 허리띠를 풀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곤한하여도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다.

애국애족의 최고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하고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들고 이역에서는 새 세대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당과 국가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로 하시면서 그들을 강성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 귀중한 보배들속에는 이역의 학생소년들도 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역의 동포들에게 보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굳건히 지켜주고계시기에 절세위인들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은 영원히 만발할것이며 이역의 아들딸들이 부르는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경모의 노래는 세월의 끝까지 높이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민족교육의 대화원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재일동포자녀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을 마련하여

공화국이 걸어온 70여년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기술인 고심어린 노력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민족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1945년 8월 15일, 온 겨레는 조국해방의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해방민세의 우렁찬 함성은 삼천리강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를 두동강내려는 외세의 검은손은 조선민족에게서 해방의 기쁨을 여지없이 빼앗았다.

세계제국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는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대륙을 잘라내는 《단검》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기 바쁘게 제멋대로 민족분열의 저주로운 38°선을 조작해낸 외세는 《해방자》로 자처하며 괴물은 군화발을 남조선에 들이놓자마자 조선반도의 영유권을 회복하였다.

남조선을 장악한 외세는 조선민족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들을 반복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의 애국배족세력을 부추겨 유언의 간관필에 범죄적인 《단선단

기》를 강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국토와 민족분열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 엄혹한 시기 평양에서는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방안이 올려나왔다.

연석회의소집제안은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연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는 리승만, 김성수일파의 3개 단체가 빠져들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친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또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외세의 침략도구인 《유엔원시조선위원회》의 감시일에 감행되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국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

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적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정객들도 민족의 대양 김일성장군님께서 《20세기 새로운 문화정치의 대본영》이 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진취할 때》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당시 연석회의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미국의 한 출판물도 《미국의 남조선단독선거강행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1948년 4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 회의에는 리승만, 김성수일파의 3개 단체가 빠져들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친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또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외세의 침략도구인 《유엔원시조선위원회》의 감시일에 감행되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국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

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적세력들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능히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우익정객들도 민족의 대양 김일성장군님께서 《20세기 새로운 문화정치의 대본영》이 된 평양에서 북과 남의 애국적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독립을 진취할 때》를 합의한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연석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 담보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사대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전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지난 세기 초엽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게 된것도,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된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삼키는 사대주의 때문이었다.

나아가 해방된 후에도 승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측의 불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의 운명개척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자주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오시었다.

력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날인 주체37(1948)년 4월 24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란봉극장에서 남조선대표들과 함께 연석회의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남조선대표들은 한결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주의침략에서 오래동안 버림받고 파멸했던 민족문화예술을 찾아내어 시대의 요구

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공연을 보면서 민족문화예술을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업적에 대하여 거듭 탄복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우아하고 황홀한 전통적인 민속무용들도 올랐다.

이때 무용을 보면서 벌거벗어난 김규식선생이 위대한 수령님께 나직이 말씀하였다. 《우리 나라 극과 장단에 맞추어 추는 조선춤이 제일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습니다.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춤이 제일 좋습니다. 노래도 조선춤에 맞추어 부르는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나라 극과 장단에 맞추어 즐겁게 추는 저 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가. 그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의 한길을 걸어갈 때 비록 험난한 길도 종횡되는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반드시 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시었다.

그의 말씀에 한성을 반공과 승미사대로 살아온 김규식선생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그도 그렇것이 그는 청년시절 미국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언더우드라는 미국인의 비서로, 그가 세운 경신학교 교감도 하였다. 이런 연고로 하여 해방후에는 외세의 도움으로 독립국가

를 세울수 있다는 승미사대주의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남의 장단에 놀아난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민족자주령명을 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이렇게 웅했다. (아무렴,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지! 정말 뜻이 깊은 말씀이야!) 본사기자 황금숙

에 빠져있었다. 그러하여 조선민족혁명명 명예주석의 자리에서도 사퇴하고 외세가 조작한 남조선민주의원 부의장, 남조선과도법정의원 의장도 하였다.

# 광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파렴치한들

얼마전 남조선의 광주에서는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지 4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날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저저마다 광주에 기여되었고 여러 통로를 통해 《광주의정신》을 운운한것이다.

《광주의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 《5.18민주화운동의 중국적파제는 통합과 화해이다》, 《5월정신을 되새겨 무너져내린 민주주의정신을 지켜나가겠다》, 《4년간 민주주의가치가 훼손된데 분노한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이러한 망발은 5.18민주화정신에 대한 모독이며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심에 대한 찰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서

1980년 광주인민봉기뿐 아니라 1960년대의 4.19인민봉기,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6월 인민항쟁 등 파쇼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참히 짓밟아온것은 과연 누구들이었는가.

다름아닌 《국민의힘》의 조상들이다.

광주인민봉기는 《독도들의 란동》이라느니, 장갑차로 진압한 전두환군사강제는 《영웅》이라느니 하고 떠벌인자들, 광주영령들의 유가족들을 《피로집단》이라고 모독한자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등지를 들고있다.

그런자들이 뻔뻔스럽게 광주에 얼굴을 들이민것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이 분노할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보수세력들이 《지난 4년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고 떠들고있지만 실지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은것도 다름아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었다. 그들이 사회진보와 민주화를 위한 검찰개혁에 한사코 제동을 걸었고 《5.18특별법》 제정 등을 시야비아하면서 원세개를 끈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년간 당국이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훼방만 놓아온 보수세력의 속심에는 오직 《정권》탈환, 독재부활밖에 없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광주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죄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고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초콜민심의 지향까지 가로막은자들이 《민주주의의 후퇴》, 《훼손》을 운운하는것은 말그대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보수세력의 호남행, 그것은 앞에서 《민주》를 떠벌이며 민심을 얻어가지고 뒤 돌아앉아서는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하려는 비렬한 총책이고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그 낮간지러운 추태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그 잔인한 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하는것이 진심이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한 교연형색(아첨의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이다》고 평하는것이 남조선민심인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남조선인민은 파쇼독군들의 후예들이며 민주주의의 본당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렸다.

본사기자 김 광 역

# 《검찰개혁을 어설피게 추진한다면...》

남조선에서 검찰이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당국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보복성경계행동을 로보화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검찰패들은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개혁추진》의 책임자》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불구속하고 법원에 기소하며 관련된 수사위원을 《정권》에로 확대하겠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새로 지명된 검찰총장이 《친정권검사》, 《정권》보호에 급급하는 《방탄총장》이 될것이라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장을 노리는 《국민의힘》것들을 작당하여 임명을 결사반대하고있다고 한다.

또한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이 현 《정권》의 고위인물들이 가담한 《증대범죄》

라고 여론화하면서 《부패정권》, 《범죄정권》으로 몰아붙이고있다고 한다.

검찰것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자들은 민심의 정당한 요구를 진면 거부하고 저들의 파멸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

지난해 7월 《법꾸라지》로 규탄받고있던 전 검찰총장이 자기의 측근이 려두된 《검언유착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권을 악용하여 한사코 방해해나섰으며 올해초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정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로 《검찰대학살》, 《인사포기》, 《망나니행위》와 같은 갖은 비방을 늘어놓으며 판관관을 벌려놓은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뉴스》를 비롯한 남조선

신문들은 《《국민의힘》이 불법출국금지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한것은 검찰개혁에 장애로 될것》, 《검사장직수는 당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개혁인물들의 재판회부는 폐입덕을 불러올수도》라는 등으로 검찰과 보수세력의 개혁발발봉음의 최종목표는 현 집권당국의 몰락이라고 평해왔다.

그러면서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구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사태는 《당국이 검찰개혁을 어설피게 추진한다면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질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있다》고 분석하였다.

남조선에서 검찰개혁완수는 곧 보수적폐청산이며 사회진보와 정의의 발라는 초콜민심의 명령이다.

사회적진보와 정의의 위해 《검찰개혁완수》라는 구호를 들고 떨쳐나선 남조선 각계층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것이다.

배영일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적폐 정당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물어메치는것은 남조선집정판에서 레사코이 불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보수세력은 권력을 앞에 놓고서는 정치적상대는 물론 저들끼리도 서슴없이 이발을 드러내놓는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내부만 들여다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는 당대표선거에 나선 인물이 여럿이 된다고 한다.

그들은 저저마다 자기가 당대표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누르고 당대표자리

를 따내기 위해 그야말로 피터지는 싸움을 벌리고있다.

조선의원들과 중진의원들사이에서는 《조선당대표론》과 《유능한 대표론》이 팽팽히 맞서고있고 거기에 지역출신을 논하는 《경상도출신론가론》과 《경상도출신론》의 대결도 만만치 않다.

누가 누구를 하는 흠방물렁기는 개싸움속에서 탈당인물인 홍준표까지 끼여들어 《국민의힘》내부가 더욱 수라장이 되고있다고 한다.

그의 복당을 반대하는 세력은 《도로한국당》, 《과거

로의 회귀》라고 주장하고 반면 중진의원들은 《저렬한 선동정치》, 《치졸한 편가르기》라고 반대파들을 공격하고있다.

가관은 문제의 인물인 홍준표이다.

《국민의힘》의 내부문제에 이래라저래라 훈시를 하고 조선들과 중진들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적극 부추기다가 자기의 복당을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자 그 무슨 《씨구기정치》를 운운했다는것이다.

자기의 복당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씨구기》에 비

유하면서 《씨구기새끼가 원동지새끼의 새끼인체 행세한다》, 《다 성장하면 그 씨구기는 원동지를 버리고 새로 동지로 날아가버린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제가 탈당해서 훌 날아가 버릴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서는 누굴 보고 《씨구기》라는것인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일각에서는 제발 입다물고 가만있으라고 핀잔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국민의힘》이 홍준표의 복당문제를 놓고 속병을 앓고있다》고 아주조

# 《보수팀》의 경기관과는...

남조선의 《보수팀》에서 다음해에 열리는 《집정경기》에 나갈 《대(표)선(수)》 후보선발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전문가의 평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 《보수팀》의 우승후보자는 누구일것 같습니까.

전문가: 현재는 홍(준표) 선수가 라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것입니다. 혹시 그쪽의 여론만이 아닌지 모르겠고, 그가 팀을 탈퇴한 경력을 보아도 실력보다는 입심이 세니 거기에 먹여들었다는 지도 모르지요.

기자: 황(교안)선수도 괜찮아 보이는데, 요즘에 대양전에서 혼란까지 하고있다면 어때요.

전문가: 자기 말이겠지요. 원래 그의 별명이 《교

활》이 아닙니까. 그를 응원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기자: 류(승민)선수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안될것입니다. 보수팀의 원로적인 박할범을 탄핵하는데 앞장섰으니 팀의 로장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본옹원세력들은 더하구요. 더우기 이쯤조차 거부감을 가지게 한다는것 같습니다. 《승민》, 백성을 이긴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기자: 라(경원)선수는?

전문가: 보기에는 기질적으로 약질인것 같지 않지만 전정현을 약질입니다. 하지만 남의 팀을 무력하고 경원시하여 실점만 당하는 라선수만 나오면 저쪽팀에서 환성을 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를 팀에서 대표로 내보내려야 없지요.

기자: 윤(석열)선수가 신진으로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까. 어느 누가 《너 팬잖아》 하고 취주니가 일시적봉분으로 출현한것 같은데 그 선수의 《실력》이 어찌까지고하는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찌보면 야심적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일종의 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자: 아 참, 안(철수)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꽤 인기있던데.

전문가: 인기만 풍선입니다. 오를만큼 오르고는 터지고말지요. 안선수는 이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철수하곤 해서 사람들이 도리머리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팀을 하나로 묶어 사기를 울리겠다고 하지만 저를 추천해달라는 호소갈기도 합니다.

김정혁

기자: 《보수팀》 선수들의 성이 모두 다른것처럼 그들의 능력도 제각각이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가: 그들에게는 다같이 한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이 《보수》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 호로 내건 《혁신》, 《혁신》도 《보수》한다는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낡은 집을 보수하는데서는 선수가 됩니다. 그들이 보수하는 집에서는 보나마 이점처럼 《독단》을 세우고 《독주》를 당하고 《독재》만 날릴것입니다.

기자: 아하 그러니 그식이 장식이라는 말이군요. 세상을 지향하는 민심의 갈피를 동떨어진것만 《보수팀》 후보들의 결과라고 할수 있는것이지 궁극합니까.

김정혁

파쇼적인 보수당국을 비호하는 한련 남조선인민들이

《금수저》와 《홍수저》, 이것은 남조선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특징짓는 대표적인 표현의 하나이다.

특히 남조선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세간에 나도는 《수저계급론》에 대해 이렇게 쓴적이 있다.

...2000년대 초만 갓 20대가 된 이들을 기다린 《3포세대》라는 란인어였다. 생활에 쫓겨, 학자금대출상환에 갇혀, 취업난에 시달리며 청춘들이 현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것, 가정을 꾸리는 통상적인 단계를 인성에서 자발적으로 투락시켰다는 점에서 그들의 현재는 고충 아닌 고충으로 읽혀야 한다. 시절은 더욱더 수상해져서 《3포》는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로,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로, 2010년 대이후로는 무엇이라도 포기하는 《노포세대》로까지 이어져왔다. 《노포세대》는 이제 나는 무슨 수지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의 자산이 나의 현재를 만들고 그 자산의 상속으로세만 미래를 그럴수 있다는것, 그것이 수저론, 신계급론이다. 누구는 《금, 은, 동수저》이며 누구는 《홍수저》이다. 그 사이에 《수지수저》, 《불수강수저》 등의 또 다른 등급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금수저》우에 《다이아몬드수저》도 출현한다. 지금 이곳이 지옥이라는 《헬조선》 그리고 이 지옥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탈조선》이 유행한다. ...

21세기에 남조선에 등장한

《수저계급론》은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수준이 자녀의 삶을 결정짓고 이것을 뒤집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슬픈 담론》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평범한 청년들은 흠수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수저》라고 말한다고 한다. 《흠수저는 수저를 들지라도 하지만 초미세먼지수저는 형태도 없다는 푸념》이라는 것이다.

《금수저》에서 《홍수저》로 계급분화된 사회, 그속에서 자기스스로 《홍수저》에서 《초미세먼지수저》라고 절망하는 남조선청년들이다.

황금만능, 권력만능의 《금수저》사회에서 《홍수저》로, 《초미세먼지》로 사라져가것이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한 삶이다.

본사기자 김 영 준



# 전 지역적인 대중적진보련합조직결성을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남고 부패한 보수수를 청산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실현할것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속에 《민중공동행동》이 전 지역적인 대중적진보련합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어 각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지난 5월 12일 남조선의 진보련합단체인 《민중공동행동》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직을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진보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고 한다.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에는 《민중공동행동》에 망라되어있던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련대》, 민주평등사회의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30개 단체가 우선 참가하였다고 한다.

《민중공동행동》으로 말하면 박근혜퇴진투쟁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고 박근혜탄핵총투쟁을 주도하였던 민중총련합조직본부의 후신이 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단체는 《조

보민중의 봄, 우리가 앞장가자!》를 주요투쟁구호로 내세우고있으며 여기에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50여개의 진보운동단체들이 망라되어있다고 한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민중공동행동》은 로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의 진보운동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들을 망라시켜 전 지역적인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전국민중행동》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불평등해소와 로동기본권확대, 《보안법》

폐지,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매달 《민중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고 북남공동선언일념일을 비롯한 주요계기 때마다 대중적인 통일투쟁을 전개하며 올해 11월에는 로동자, 농민들의 련합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단체는 다음해초에 《전국민중행동》을 정식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자주성, 《보안법》폐지, 민중의 생존과 정의, 공정과 평화를 향해 변함없이 전진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 전범기를 미화분식하는 군국주의후예들

최근 일본당국이 일제의 군기였던 《욱일기》를 사용하는것이 정치적선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떠들었다고 한다.

《욱일기》는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해를 본뜻이었고 풍어와 출산, 명절 등 축하의 의미로 자국민들이 널리 사용되고있다는것이 일본당국의 주장이다.

과거의 죄악을 외면할조하고 전면부정하려는 또 하나의 파렴치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욱일기》는 1870년부터 일본북국의 군기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본이 우리 나라와 아시아대륙침략당시 내걸었던것으로 하여 나치스도이탈란드의 기발과 같이 전범기로 락

되고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국제체육경기를 비롯한 행사장에서 《욱일기》를 날리는가 하면 인터넷상에도 공공연히 올리고있으며 영화와 만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교묘하게 삽입하여 자국민들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군국주의정신을 고취시키고있다.

더우기 당국의 목인, 조종하에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욱일기》를 앞세우고 자국민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린치를 가하는 망나니짓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이 벌리는 이러한 망동, 망언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거 《황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려는 군국주의

후예들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준다.

《욱일기》를 날리며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군화발로 밟던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략의 역사를 재현해보려는 섬나라 정치난쟁이들의 패권야망을 실증해준다.

세월의 풍파에 아무리 씻기워도 지워지지 않을 원한의 피가 배어있는 전범기이다.

세기를 이어오며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다시 침략하려고 책동해온 범피의 역사로 얼룩진 《욱일기》이다.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파렴치하게 뇌까리는 일본당국자들의 정신상태를 정의와 역사의 눈으로 다시금 진단하고 더더욱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욱일기》를 앞세우고 자국민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고 린치를 가하는 망나니짓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이 벌리는 이러한 망동, 망언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거 《황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려는 군국주의



— 선교편직공장을 찾아서 —

**공장에 넘기는 새 제품을 개발 열의**

얼마전 우리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선교편직제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선교편직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맞이한 주성미실장은 지금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새 제품개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공화국기를 형상화한 T셔츠와 각종 운동복, 외투, 세라. 내의류들이 전 시된 제품전본으로 안내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편직물들은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의 종수와 가지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그 비결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경공업부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공장에서는 계절적특성에 맞는 다중화, 다양화, 다색화가 실현된 질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안실에 들어서니 도안가들이 최신산업기술자료를 참고하면서 새 제품들과 상표들을 창작하기 위한 탐구에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시대적미감과 편직물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유행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남, 녀셔츠와 운동복 등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휴식일뿐 아니라 퇴근이후 여가시간에도 여러 새 제품개발 열의를 찾아 어느 제품이 수요가 제일 높은가, 인민들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는것이 이것이 우리 공장 새 제품개발의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작업현장을 돌아보았다. 직조, 염색, 가공, 재단, 날염공정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라플의 애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계절적특성에

# 활발히 진행되는 재자원화사업

지금 공화국에서는 자립, 자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설비, 자재와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재자원화는 물질적부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물, 폐설비들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는것을 말한다.

재자원화를 실현하면 보다 적은 자금과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 희천제사공장에서

희천제사공장에서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발전동력으로 틀어쥐고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집단은 자체의 힘으로 각종 설비부속품을 생산보급실운영에 있었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은 련관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기술혁신안,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또한 기술혁신계획을 대담하게 세운데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설비의 현대화와 기술갱신을 다그쳐 고칠필요없고 실수물을 훨씬 높여냈다.

재자원화를 실현하는데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공정을 꾸려 집진승단백맥기와 효능이 높은 물비누, 그릇세척제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도 해결하고있다.

## 강원도 원산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강원도 원산시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로 생산활성화를 적극 추동하고있다.

원산구두공장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방에 흔한 원료와 자재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지방공업공장들과의 련계와 협동을 강화하여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고있는 공

면을 전부 회수리용하고있다. 원산염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유류자재수집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많은 량의 원료를 확보하여 인민 소비품생산을 다그치고있으며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식료공부산물로 비누를 생산하는 공정도 꾸려 놓아 그 덕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파빌, 파수지수집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새로운 원료원천지를 탐구하는 한편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들도 모두 회수하여 생산에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

##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 민들레 학습장 (1)

주셨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단 한번만이라도 몸가이에서 뵈고싶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나가신 공장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호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공장지배인은 설명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104(2015)년 8월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셨을뿐 아니라 공장이름을 친히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고 한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다. 질 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라든가 주고싶은 심정이었는지 그날은 환하게 웃으시었다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지배인은 이같이 이야기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 좋은 학습장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을 소중한

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뜻있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우리 동포들에게도 잘 알려져있는 노래이다.

민들레 곁에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뉘뉘던 그 시절 ...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움터나는 사상감정이라고 나

이날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호름선화된 현장을 일일이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연령심리에 맞게, 과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제때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고 한다.

재중동포 김영란

봄의 정서를 안겨주는 민들레는 공화국의 산과 들에서나 흔히 볼수 있다. 하지만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민들레는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왜 그런가. 나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봄을 맞은 조국의 산과 들에 민들레가 만발하던 2016년 4월 27일, 새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에 대한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날을 나는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년간생산능력이 수천만권에 달하여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인 민들레학습장공장.

우리를 맞이한 지배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로 며칠전에 이 공장을 찾아



웃음이 없는 생활에 대해 생각할수 있을까? 누구나 자기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기를 바랄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익살과 기지, 해학으로 생활에 웃음을 더해주는 희극배우들을 사랑하며 존경한다.

그들가운데는 타고난 만담배우로 불리우는 리순홍 선생도 있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만담이라고 하면 리순홍을 떠올리고 리순홍하면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는 공화국인민들의 사랑을 받은 유명한 만담배우이다.

얼마전 《통일신보》 기자는 중앙에경제선전대에서 일하는 공훈배우 리순홍선생(63살)을 만났다.



## 팬대를 총대로 바꾸어주고

리순홍선생에 대한 취재는 참으로 수월하지 않았다. 어느때는 작품창작을 위해 현실속에서 살다싶이 하는지라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에는 여러 단위들의 화술소품들을 보아주고 의견을 주느라 쫓겨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것이다.

한주일만이나 어느 한 예술극장에서 리순홍선생에 대한 취재를 할수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안경너머로 보이는 익살기넘친 눈빛, 애가할 때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정이며 손짓, 몸짓... 무대에서 만담을 할 때의 모습이나 평상시의 모습이 전혀 다름바가 없었다.

첫인상은 말그대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모습이었다.

《기자동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나만 보면 그렇게 웃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웃음을 준다든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내 직업에 제일 사랑합니다.》

《다들 리순홍선생을 두고 타고난 만담배우라고 하는데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타고난 만담배우 리순홍

그의 소박한 재담은 중대병사들의 인기를 끌었고 군부자들에게까지 당성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웃음과 함께**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리순홍선생은 국립회극단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은 나라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며 혹독한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안되었던 그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웃음을 전문적으로 꽃피우는 국립회극단을 조직해주시고 각 예술단체에서 웃음창조자 기질을 가지고있는 예술인들을 찾아사람처럼 팔라 그곳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던것이다.

《그때 최광호, 함영선, 박천수, 최경희동무들을 비롯하여 재능있는 화술배우들이 국립회극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우리들이 창조한 화술소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도 물어보시고 잘한다고 칭찬하시었으며 우리 식 웃음창조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도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리순홍선생은 은 나라 방방곡곡에 웃음을 싣고다니던 국립회극단시절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웃음의 힘, 웃음의 참 의미를 느낄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 나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레를 락관하며 만담을 웃음으로 해쳐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의 랑만과 불굴의 의지도 체험

자신이 직접 창작하고 연기한다는것이다.

리순홍선생이 지닌 정열은 참으로 대단했다.

새 작품창작에 들어가면 하루에 보통 3시간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게는 늘쌍 가지고다니는 수첩이 있는데 현실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에서 창작소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써내는 수첩이다. 그런 수첩이 수십여권이 된다고 한다.

동료들은 그를 가리켜 《독학가》, 《정열가》라고 부른다. 문학작품은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세계유모에 이르기까지 그가 읽는 책의 주제는 실로 다양하고 그 분량도 방대하다.

그의 나이도 이제는 예순 넘기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젊음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지난 시기 여러차례나 그의 만담작품을 보아주시면서 안겨주시기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의 미숙한 만담들을 여러편이나 보아주시고 잘한다고 평가도 해주셨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좋은 희극화술소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후비를 잘 기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지금 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서생활기질이 뿌려졌습니까? 가는 곳마다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니 웃음소재가 차고넘칩니다. 그 소재들로 《일요일》, 《명당자리》, 《제일이야》를 창작했습니다. 웃음넘치는 인민의 생활을 그대로 담았더니 모두가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익살군**

리순홍선생은 가정에서도 익살군으로 만담배우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가리켜 화목한 가정, 우리 부부를 가리켜 《사슴부부》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선수이기때문이지요. 집사람이 뒤라고 잔소리하면 난 무조건 《잘못했다》. 《잘못했다》. 입이나 이런 내게 차려지던 호박이 수박으로 변하고는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그의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라고 한다.

안해인 배춘심녀성(61살)은 흥안의 시절 이름난 무용수였고 안무가였다.

리순홍선생의 딸 리향은 의학을 지망했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산원에서 의사로 일하고있다.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아서인지 평양산원 응원대장으로 활약하고있는데 지난 시기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에서 평양산원이 여러차례 1등하는데 한몫 단히 했다고 한다.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6)

랑반을 인겨주는 금잎회화나무들



풍수시련한 보통강반의 영웅거리가 황홀경을 펼쳐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었다.

노란 잎새를 활짝 펼친 가로수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있는것이다.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 가로수들은 수종이 좋은 금잎회화나무들이다. 흔히 사람들은 나무잎들이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드는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특이하게 잎이 노란색을 띠고 나무모양이 폭포수가 흘러내리는것 같이 보기가 좋으며 꽃이 필 때는 향기가 풍기면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 나무들은 영웅거리의 자랑이다.

10년전에 영웅거리를 장식하기 위해

수백그루의 이 나무를 확보하여 도로 주변에 심은것이 이제는 제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자기의 자태를 한껏 뽐내고있다.

모란봉구역 원림사업소에서는 이 나무를 퍼치기 위해 양묘장에서 나무모를 계단식으로 자배운다고 한다. 차를 타고가면서 보아도, 비쳐가면서 보아도 나무들사이로 비쳐드는 해살과 함께 반짝거리는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이다.

황금빛잎새 설레이는 금잎회화나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철민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특색건축기술발전을 추동해간다

특색건축물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건설하여놓으면 방대한 에너지를 절약하여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다.

공화국의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특색건축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특색건축, 지능건축을 창조하기 위해 특색건축기술발전의 학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연구소에서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으면서도 공화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특색건축물의 평가기준, 특색건축과 지능건축평가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확립한데 이어 새로운 평가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곳 연구집단에서는 나라의 혼한 원료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는 특색건축물을 개발도입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 과정에 색기장재료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현실에 도입하였으며 특색건축개발과 재자원화를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환경보호형의 메움재를 제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소들은 가구와 장식재료, 외장재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데 기초하여 그 경험과 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고있으며 건축부문에서 마감건재로 널리 사용되는 목재의 부식을 막기 위한 연구도 추진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연구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와 만난 조희원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건축물의 설계에서 기본은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오염발생을

월발이 벌어지는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

공화국의 각지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받들고 력사유적,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관리사업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민족유산이 빛을 뿌리도록 할 예극의 마음을 안고 범오안과 통곡서원, 광범사 등의 지불기와 교재, 추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함경남도에서는 고원군 랑천사 만세루와 영평군 풍홍사로 가는 도로보수, 지대정리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냈으며 평안남도 평성시, 평원군, 황해남도 배천군, 남포시 룡강군에서는 안국사, 미두산성, 강사사, 룡강사신무덤을 민족의 우수성을 심어주는 력사유적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줄수 있게 꾸려놓았다.

라선시에서는 포항재봉수, 승전대비각주변에 대한 석비레갈기, 물도랑정리를 하였으며 자강도에서는 강계사, 최현 원명사의 단청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하였다.

개성시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고려 박물관, 평통사, 송양사원을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평안북도에서는 풍문대굴, 약산동대를 비롯한 명승지들에 잣나무, 살구나무, 수유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를 돋우고있다.

함경북도에서도 철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에너지소모량이 늘어나 영양보충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입맛이 없고 소화기 잘 안되는 여름에는 보리밥, 감주, 메밀국수, 옥수수, 울무죽 등의 전통음식이 좋다.

낮은 기온에서 자라 찬 성질이 있는 보리는 섬유질이 많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변비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한다.

보리는 비장과 위장을 건전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능도 있으므로 당뇨병환자에게 좋으며 음식에 체하여 배가 묵직한것도 치료한다.

힘이 빠지고 설사를 자주 할 때에는 울무죽이 좋다.

습기를 제거하는 효력이 커서 몸이 제부동하고 무거운 사물이나 몸이 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또한 울무죽은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작용도 하며 항암효능도 있어 암환자에게 좋으며 피부질환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초음파응용의 핵심기술들을 정복해간다

초음파라고 하면 주파수가 2MHz이상으로서 사람이 들을수 없는 소리파의 일종이며 높은 지향성과 에너지밀도를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초음파기술이 응용된 초음파거리계, 초음파현미경, 초음파가공기, 초음파세척기 등 각이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음향공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이 기술을 리용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초음파세척기, 휴대용초음파결합탐지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분산산화장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제작하였다.

초음파세척기는 주로 표면이 복잡하거나 깊은 구멍들이 있는 제품, 실험기구 및 수술도구, 귀금속제품 등을 효과적으로 세척하며 그 효과 또한 높다.

휴대용초음파결합탐지기는 각종 주물품들과 용접부위의 기공, 균열 등 내부결함들의 위치와 크기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으며 초음파두께측정기는 판의 벽과 같이 한면만 드러나있는 제품의 두께를 신속정확히 측정해낸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리용하는 초음파분산산화장치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두가지이상의 액체들을 균일하게 유약시킨다. 또한 고체분말원료들을 더 미세하게 분쇄하여 액체속으로 균일하게 분산시키기도 한다.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을 안고 초음파응용의 핵심기술

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나가는 이곳 연구집단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 앞으로 가지있는 더 많은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사화 립제와 화전놀이 (3)

《백호선생기전에 마음먹어 뭘 못하시겠소만 부디 삼가해주소. 사대부의 근근이를 잊고 그 근근이에 대한 야로 부리가 일주라고, 랑반신분에 기생의 죽음을 슬퍼해서 랑반들을 모독했다고 선생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는 랑반이 뭐 강사문이 하나뿐인줄 아오?》 하며 백정은 못내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만발한 진달래로 한벌 덜인 풀안은 피그나 넓었는데 안복판으로는 시내물이 구불구불하였다. 바다가 번듯한 원편에는 아전이며 하인들과 기생, 약공들을 데리고 올라온 군수이하 고을랑반들이 자리를 잡고는 개울 건너 오른편으로 얼마간 치치여서는 농군들의 터였다.

이곳 고을에서는 해마다 정해놓고 여기에서 랑반유지들과 농군들이 개울을 사이두고 화전놀이를 펴군 하였다.

강사문을 위시한 랑반들은 화전놀이의 첫 공적인 시내물에 밭씻기인 탁족에 달

라붙었다. 이들은 저마끔 마음에 드는 돌우에 엉덩이를 붙이고 버선을 벗어 옆에 놓고나서 활활 흘러내리는 시내물에 발을 잠그었다. 개울 건너에서도 구름처럼 모여든 농군들이 무릎우까지 바지가 맵시를 훌쩍 건어올리고 다투듯 물에 뛰어들었다.

림제가 백경과 함께 나타났을 때 강사문은 그를 슬그머니 피하는 눈치였고 다른 랑반들도 거의나 본체만체하였다.

원래부터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정의감이 강한테다가 능란한 익살로 때와 장소에 맞게 랑반관리들을 골잘 조종하는 립제는 랑반자들에게서 미움을 사고있었다. 누구이든 그가 보는 앞에서 너털하게 처신하거나 조급이라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에는 가차없이 조롱과 통쾌한 해학의 대상이 되어 독특히 망신을 당하곤 하였다.

이런 가운데 황천이의 녀를 위로한 립제의 굴이 나란났을 때 그는 눈에 든 가



와는 판 다르지 않소. 발을 씻으니 마음까지 깨끗해지는게 이런 때 먹는 화전놀이야말로 전부 살이 되지요.》 하며 기꺼이 맞장구를 쳤다.

림제와 이미 낯익이나 사귀었던 한 선비가 그를 돌아보며 《백호선생, 이런 때시 한수 짓지 않겠소?》 하고 물었다.

《이 화창한 명절에 한수 남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선비겠소. 글썽이요, 춤도 취

역사유물 불꽃뿔음무늬금동관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발굴된 불꽃뿔음무늬금동관은 4~5세기의 력사유물이다.

머모양의 보관테두리 옷줄에 인동무늬를 새기고 밑줄에는 구슬무늬를 새겼으며 그사이에 7개의 나무잎장식을 넣어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이 테두리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바람에 실려 세차게 날리는 구름과 같은 무늬를 새긴 9개의 가지를 새겼으며 보관 두끝에는 웃고름과 같은 장식을 아래로 늘어뜨렸다.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고 무늬가 아름다우며 우로 치솟으며 타오르는 불길무늬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진취적인 생활기풍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이 장식품은 그것을 만든 기술이 당시로서는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보관의 머는 압착가공하여 만들었고 피의 구멍은 고

정된 형태를 놓고 똑같은 크기로 뿔었다.

두리의 금실은 높은 인발기술로 매우 가늘게 뽑은것이며 구슬들은 자그마한 덩어리소재를 가지고 두드려 만든것이다.

이 보관은 청동으로 만들고 구우에 아말감도금을 한것인데 도금층이 기본금속(청동)과 완전히 밀착되었으며 도금면이 매끈하고 두께가 일정하다.

또한 좋은 방부제를 발랐기때문에 이 장식품은 천수 백년동안이나 땅속에 파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고 본래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있다.

본사기자

